

새 언약의 일꾼

말씀 : 고린도후서 3:1-4:6

요절 : 고린도후서 3:6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저는 어느 분으로부터 서울대 구두 수선공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고시에 패스하여 법관을 하던 분이 10년 만에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구두 수선을 하던 할아버지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나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돈을 버셔서 다른 일을 하셔야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두수선을 하니까 이 학교에서 판검사, 의사가 나오는 거여!” 할아버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이처럼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에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이를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였고, 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새 언약(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며 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언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명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동시에 받았습니다(롬1:5). 이 시간 다시 한 번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하나님의 추천서(1-3)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부치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1,2) 1세기의 순회 전도자들은 권위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추천서를 소지하면 머물 곳과 모임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교회를 방문했던 거짓 교사들도 이러한 추천서를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가르칠 자격이 있고,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으므로 사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듣게 된 바울은 자기에게는 사람들이 발행하는 그런 추천장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종임을 천거하는 추천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열매야말로 그 어떤 추천서보다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추천서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추천서는 때로는 위조할 수도 있고 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추천서는 속일 수도 없고 과장할 수도 없는 가장 확실하고 진실한 추천서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 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 판에 쓴 것이라”(3)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추천서는 사람들이 만든 추천서와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추천장’

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편지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것이요, 또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쓴 것이며, 종이나 돌 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판에 쓴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다니는 편지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무슨 뜻 입니까? 세상에 나가 살 때 마음 판에 새겨진 주님의 편지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담긴 성경 편지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습관이나 언어생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든 간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상에서 복음역사를 섬기려면 하나님의 추천서가 필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U.B.F 광주 7부 평신도 목사님들은 신학교의 추천서인 전도사나 목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아닌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추천서인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 U.B.F 평신도 목사님들은 지난 56년 동안 95개국에 1700여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였습니다. 광주에서만 100여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U.B.F의 추천서입니다. 방탕하며 살다가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에 의해 변화된 이방 현지 목사들은 우리 선교사들의 추천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추천서를 받고자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추천서를 받고자 투쟁해야 합니다. 신학교에 가서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양들의 변화를 체험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추천서가 없다고 위축되기보다 하나님의 추천서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천서보다 하나님의 추천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추천서를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확신 있게 더 열심히 복음역사를 섬길 수 있습니다.

II.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직분(4-18)

4-6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는가를 말해줍니다.

첫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주신 하나님(4-6).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5,6a) 이 구절을 표준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

니다.” 여기서 ‘만족’으로 번역된 ‘히카노스’는 ‘자격이 갖추어진, 부여된’이라는 뜻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 곧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15:10).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6) 여기서 "새 언약"이란 표현을 바울이 사용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새 언약의 기원은 예레미야 31:31-3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성만찬을 하실 때 포도주 잔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22:20). 구 언약에도 죄를 사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할 때마다 흠 없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덧입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여서 죄를 지을 때마다 번거롭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구 언약의 제도는 구원역사에 있어 하나의 모형(模型)으로서 장차 올 참된 것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새 언약은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기 때문에 죄 사함의 효과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히9:12). 옛 언약은 이미 그 유효기간이 끝났고 새 언약에 의해 대체되었습니다.

6b절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새 언약은 율법 조문(문자)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기서 율법 조문은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린다는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율법 조문, 곧 율법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율법 조문'은 원래 선한 것이었고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여 거룩한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성령으로 살리는 일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게 무죄 선고를 받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것을 행할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언약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죄와 사망의 세력권에서 벗어나 생명을 주는 성령의 세력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사람을 죽게 하지만, 성령은 죽을 사람을 살려서 새 사람 되게 하고, 나아가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합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둘째,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7-11).

7-11절에서는 새 언약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구 언약의 직분의 영광스러움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7-9절에서 바울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의문의 직분과 살리는 성령의 직분,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둘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을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7-9) 구 언약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거울과 같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죄로 깨닫고, 죄인으로서 자아발견을 하여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 뿐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서 내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규모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음란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사는 이방 세계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맡은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모세는 이 직분을 맡았을 때에 오래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의 얼굴에 찬란한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의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 났던 광채를 가리켜서 “**없어질 영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었지만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지는 영광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한 율법을 선포한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이었다면, 사람을 살리는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크고 탁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성령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 언약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인데 반하여, 새 언약의 직분은 의의 직분입니다. 10,11절에서는 구 언약의 직분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광에 불과하지만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은 영광임을 말해 줍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10,11)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 어떤 점에서 영광스럽습니까?

새 언약의 직분은 죄로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직분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직분입니다. 새 언약의 직분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귀한 직분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직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직분이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파멸로 치닫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직분처럼 값지고 가치 있는 직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사52:7)라고 노래했습니다.

구 언약의 직분이 달빛과 같다면 새 언약의 직분은 햇빛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을 비춰주는 달빛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강렬한 햇빛이 떠오르면 달빛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달빛도 밤에는 약간 고맙지만, 해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새 언약을 전파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의롭게 살고자 수도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행을 해도 죄의식에서 자유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비오는 날 친구와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루터는 자신도 죄 때문에 언젠가는 벼락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구 언약에 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로마서 1: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죄 사함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새 생명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죄의식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은혜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헨리 C.모리슨(Henry Morrison)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건강을 잃고 가족도 하고 이제 늙은 선교사가 되어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돌아오던 배에는 아프리카의 한 국가를 방문 후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구로 입항하고 대통령이 내리자, 붉은 레드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팡파레 소리로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간 후 모리슨 선교사가 항구의 출구로 나서자 레드 카펫도 없었고 군악대의 팡파레 소리도 멎은 후였고 그를 마중 나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저녁 노을 진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서 항구를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석양의 구름 속에 찬란한 빛살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선교사를 향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에는 군악대의 나팔소리가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붉은 카펫이 아니라 황금 유리 길을 깔고 내가 너를 친히 마중 나가 줄 것이니, 아들이야,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으니 이것을 잊지 말라”

세상에는 나름대로 영광스러운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와 판사, 교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판사는 죄인의 생명을 좌우하고 교수는 지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사는 육신의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뿐이고 판사는 죄인의 형량을 조금 감면해줄 뿐입니다. 교수는 세상이 발전 할수록 없어지는 상대적인 지식을 가르칠 뿐입니다. 이러한 직분들은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이러한 직분들은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얼마 못가서 시들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지성인에게 가르치는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나 교수나 의사나 판사, 검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목자의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목자로서 긍지나 자부심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자신을 실업자요, 세일즈맨과 같이 자신을 비하시키고 스스로 메뚜기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종교 자리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어도 목자가 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인식하고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최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사람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주신 것은 얼마나 더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셋째, 새 언약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축복(12-18)

12-18절에는 우리가 새 언약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해 줍니다.

①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12-17). “우리가 이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12,13)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17)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을 엮어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죄의식처럼 우리를 강하게 엮어매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죄의식이 따라 다니게 됩니다. 이 정죄의식은 아무리 세월이 오래간다 할지라도 결코 안 잊혀 집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구속이 사라지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주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모든 장벽이 사라지고 자유 합니다. 자유는 온전한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의 영은 자유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의 영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항상 바라봅니다.

독일의 빌헬름스하펜에 사는 50세 된 한 선원(船員)은 27년 전 한집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려다가 여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자 살해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살인을 저지른 괴로움으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며 괴로워하다가 견딜 수 없어서 27년 만에 경찰에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죄의식은 사람을 미치도록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식으로부터 자유 함을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인생의 결국이 죽는다는 사실은 사람을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며 허무와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사탄의 고소에 시달리지 않고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②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18) 우리가 율법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참 자유 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수건이 벗겨지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새 번역에서는 “점점 더 큰 영광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ever increasing glory” 라고 했습니다. 성화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광입니다. 성화의 절정은 영화입니다.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최후의 날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세상에 이 보다 더한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희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III. 새 언약 일꾼의 임무(4:1-6)

먼저 바울은 자신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1) 영어 성경에는 긍휼을 받아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Therefore, since through God's mercy we have this ministry’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으며, 새 언약의 직분을 맡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인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불러주셨고, 그에게 모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긍휼로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온갖 반대와 고난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2)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드러내지 못할 창피스러운 일’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후 부끄럽고 숨은 모든 죄들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주의 종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플러스 알파를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3,4)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빛)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혼미하게 한다.’는 말은 ‘눈을 멀게 한다.’는 뜻으로, 사탄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그들의 마음의 눈, 즉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럼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5)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다시 말해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주님이라는 뜻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은 나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높으신 주님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이 주가 아니요 사람이 주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목자의 권위로 양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눈물과 겸손과 사랑으로 양들을 섬겼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6) 바울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된 것은 그의 이성적 추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내면에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빛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새 언약의 사건은 천지창조에 비견할만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창조의 빛이 세상에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면, 구원을 위한 두 번째 창조의 빛은 인간을 덮었던 영적인 무지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해줍니다.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난(9,10월) 일용할 양식 책에 원천 UBF 센터의 김승원 목사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캠퍼스에서 한 양을 전도해서 즉석 일대일을 하였습니다. 말씀공부를 하고 나서 그 양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김승원 목사님을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양도 “목자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목자님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라고 하였으며 또 한 양은 “목자님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승원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행운입니다.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 어둠의 종으로 살았던 내가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행운을 주는 목자가 되었을까요? 정말 나는 예수님 만나 복이 터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캠퍼스에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를 만나는 것이 행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게 된 것은 엄청난 은혜요 특권입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비추이고 그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는 날, “예수님 만난 것이 내게 대박사건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긍휼로, 이 직분을 받았습시다. 자격 없는 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 직분은 모세가 가졌던 옛 언약의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의 직분, 살리는 직분, 영원한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처럼 이 직분을 힘써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행복한 목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